

Abstract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외국전문가 초빙 연수과정의 추진 체계 및 추진 방안

- 2-1. 추진체계 및 방법
- 2-2. 커리큘럼(curriculum)의 개발체계

3. 외국전문가 초빙 연수과정 운영 프로세스

- 3-1. 과정 개설 전 준비사항
- 3-2. 과정 진행 중 점검사항
- 3-3. 과정 종료 후 점검사항

4. 결론

디자인의 국가경쟁력은 전문디자이너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냐에 좌우되며, 전문디자이너가 부족한 국가는 이를 어떻게 확보하고 양성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디자인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서 외국전문가 초빙 연수과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전문가 초빙에 따른 디자인분야 연수과정의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틀을 제시하고, 연수과정의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사후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process)를 제시하였다.

둘째, 연수과정 운영 단계에서는 외국전문가 초빙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과정개설에 따른 사전준비단계, 과정진행 중 점검사항, 과정 종료 후에 수반되는 각각의 사항들에 대한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제시하였다.

셋째, 위와 같이 외국전문가 초빙 연수과정 운영에 따른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디자인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디자이너의 자질향상과 디자인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esign is influenced by how many professional designers the countries have, and it is a very important factor to the countries which are short of professional designers that how they can secure and educate them. This report will present plans as below focusing on the training course management by the invited foreign specialist as a part of the way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industrial design.

First of all, it presented the outline of promoting the system and method of the training course with the invitation of the foreign specialist, and also presented a series of process from planning to evaluating the project afterwards.

Secondly, it presented the checklist as general details coming with the foreign specialist invitation on the stage of training course management, such as the advance preparations to open the course, things to be checked in progress and every other detail coming after the course completion.

Thirdly, the above presented process in association with the training course management inviting the foreign specialist led us to find a way to educate specialists for rais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esign in the future, and we will be able to improve the quality of internal designers and advance their design through this.

(Keyword)

Foreign specialist invitation, Designer manpower development, Implementation of training course

1. 론

1-1. 목적

21세기에는 정보통신, 문화와 함께 산업디자인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디자인산업은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밖에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은 충분한 전문디자이너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냐에 좌우되며 전문디자이너가 부족한 국가는 이를 어떻게 확보하고 양성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 디자인산업의 전문화와 함께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산업의 구조 변화가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바탕을 두게 되며 이를 위한 디자인 인력의 정예화 및 재훈련 등이 계속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지난 2000년 3월 23일(KIDP 회의실) 디자인 산업의 정책 간담에서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부터의 경쟁력은 디자인이 좌우 한다”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으며, 여기서 디자인 산업의 비전을 밝히면서 디자인 교육의 혁신으로 “우수 디자인 인재 육성”과 새로운 시대의 디자인 진흥의 키워드는 “실력(Competence)과 자신감(Confidence)”을 고취하기 위한 “C&C”, 즉, 실력과 자신감을 갖춘 국제적인 디자이너들을 양성하여 외국의 디자이너들과 대등한 경쟁 관계 유지를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문디자이너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디자이너의 양성은 신규인력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디자이너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화가 더욱 중요하다. 인력의 전문화는 경험에 의한 기술습득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 각종 선진국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선진국가의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연수과정 개최에 따른 교육운영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국내 전문디자이너의 자질향상 및 국제적인 디자인 마인드의 능력을 함양하는데 연구의 목표를 두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앞서 언급한 대로, 본 논문에서는 외국전문가 초청 연

수과정에 필요한 운영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으로서 첫째, 외국 전문가 초빙에 따른 연수과정의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틀을 제시하고, 연수과정의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사후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process)를 언급하고자 한다. 둘째, 과정개발을 위한 커리큘럼(curriculum)의 개발체계를 문헌연구를 통해서 개념적으로 정립해 보고자 한다. 단, 이번 논문에서는 연수과정에 필요한 커리큘럼의 설계 부분은 제외됨을 밝혀 둔다. 그 이유는 주제(연수과정의 테마)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연수과정 운영 단계에서는 외국 전문가 초청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과정개설에 따른 사전준비단계, 과정진행 중 점검사항, 과정 종료 후에 수반되는 각각의 사항들에 대한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위와 같은 연구내용을 토대로 연수과정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들을 제시하여 향후 산업디자인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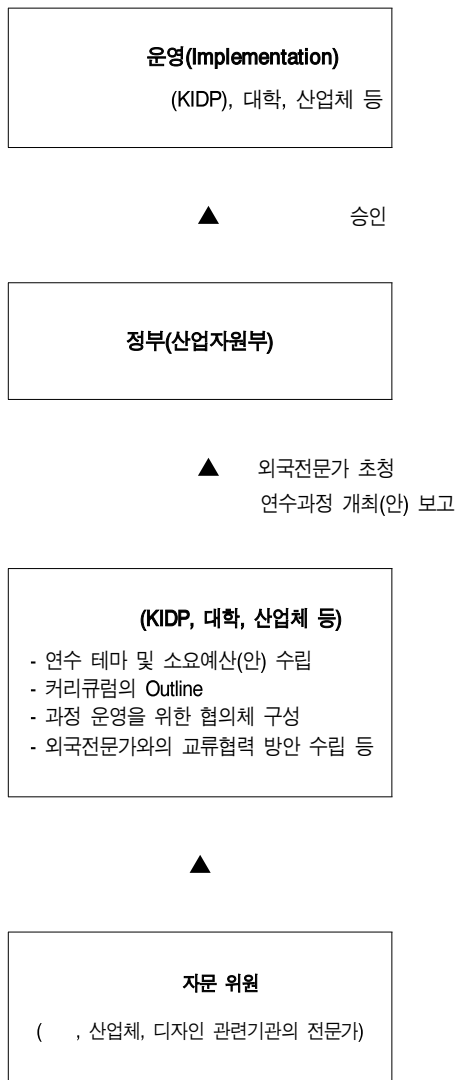
2. 외국전문가 초빙 연수과정의 추진체계 및 추진 방안

2-1. 추진체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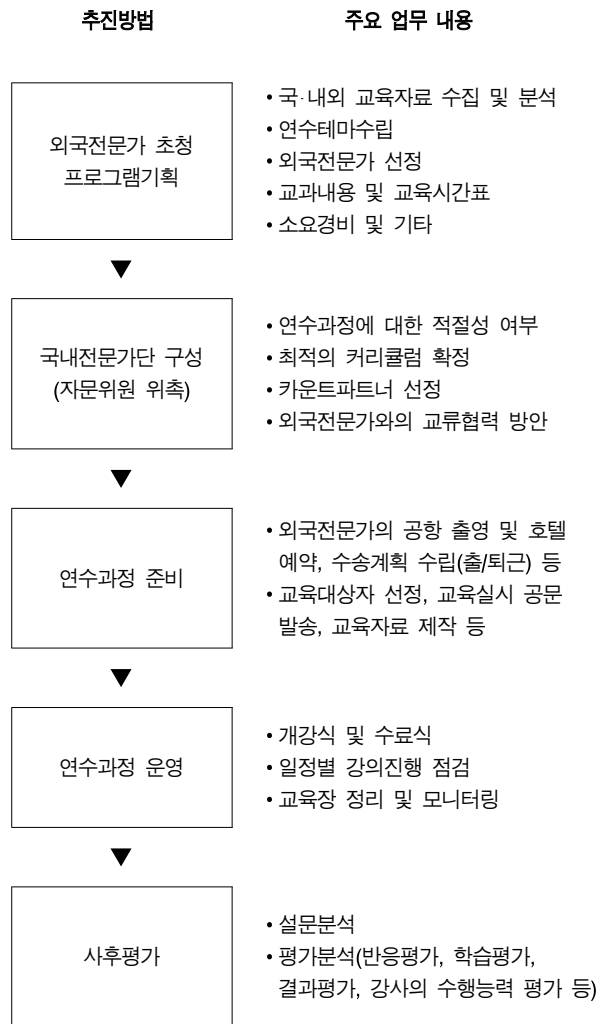
외국전문가(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일본 등)를 초빙하여 연수과정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의 수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기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국·내외의 교육자료 및 커리큘럼, 외국인 강사 및 국내 전문가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다.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연수과정에 대한 테마 선정, 외국전문가의 선정 및 초빙문제, 교육시간표 및 교과내용, 교육일정 및 장소, 소요예산(안) 등이 1차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내 전문가 단의 구성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계 및 산업체, 관련기관의 해당 분야 전문가 단을 구성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로 하여금 연수과정 수립에 대한 적절성 여부, 커리큘럼의 검토, 원활한 강의진행을 위한 카운터파트너(Counterparts)의 선정문제, 향후 외국전문가와와의 교류

1) 감담회 자료, KIDP, 2000. 3. 23

협력에 대한 방안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수과정의 준비단계로서 외국전문가의 공항출영 및 호텔예약, 수송계획 수립, 교육대상자 선정, 교육 실시 공문 발송, 관련 교재제작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연수과정 운영 단계로서 개강식 및 수료식, 일정별 강의진행 확인 및 감독, 강사수송, 교육장 정리 및 강의 모니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후평가의 단계로서 설문분석 및 평가 분석에 따른 반응평가, 학습평가, 강사의 수행능력 평가, 결과평가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추진 체계 및 방법의 틀을 살펴보면 <표1>, <표2>와 같다.



[표1] 연수과정 추진 체계



[표2] 연수과정 추진 방법

2-2. 개발체계

아무리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직무와 연결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동시에 형식에만 치우치는 활동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전문가를 초빙하여 효율적인 연수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접근법(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 SAT)²⁾의 기법을 적용하여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SAT는 훈련의 연속적인 평가와 요구되는 역량을 도출하는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정의하며 SAT는 훈련의 효과성과 완전성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정의

2) Nuclear Power Plant Personnel Training and its Evaluation: A Guidebook, Executive Summary, IAEA, 1996

하고 있다. 또한 SAT는 이미 교육훈련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³⁾ SAT를 바탕으로 하는 연수과정은 연수대상자들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며 연수프로그램의 평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연수과정이 교육목적을 만족하는가를 증명할 수 있게 한다.

SAT는 직무와 연수필요성 분석(Analysis of jobs and training needs), 연수프로그램의 설계(Design of training programmes), 연수자료 및 교재개발(Development of training materials), 연수과정 운영(Implementation of training), 훈련 효과성의 평가(Evaluation of training effectiveness)의 총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이 다섯 단계가 하나의 주기로 연수과정의 개선활동이 수행됨과 함께 각 단계에 피드백이 된다.⁴⁾

SAT의 다섯 단계를 단계별로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1단계 : 직무 및 연수(훈련)의 필요성 분석
 분석단계는 연수필요성과 훈련 역량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분석단계에 필요한 입력은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연수생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나 연수의 필요성 또는 목적이다. 분석단계에서 얻은 것은 연수과정에 의해 언급되는 특별한 훈련 필요성의 항목과 연수생의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단계 : 연수프로그램의 설계
 분석단계에서 도출된 연수 필요성과 연수생 역량은 설계단계에서 연수목적으로 변환된다. 이 연수목적은 연수계획 속으로 조직화되어 진다. 연수계획, 연수목적, 연수생 평가도구가 연수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생산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연수과정 교재개발단계의 입력 자료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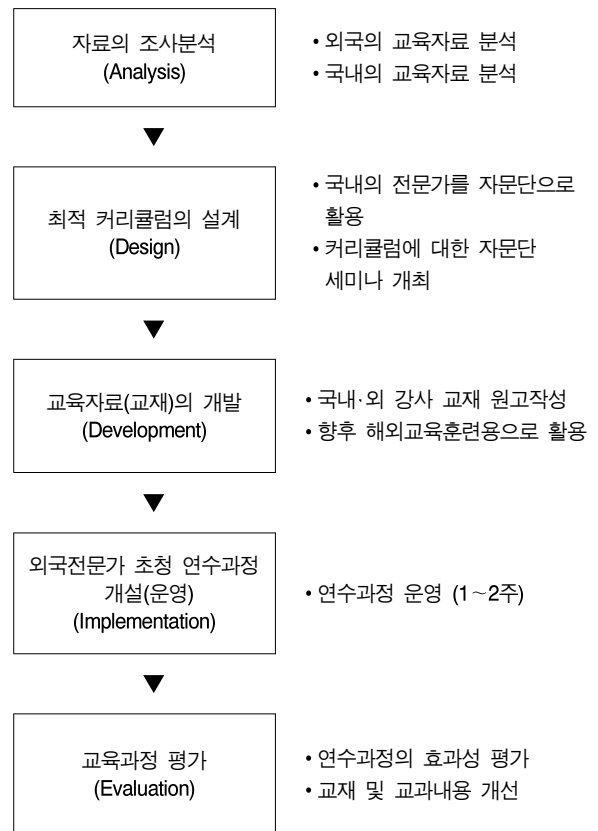
제3단계 : 연수자료(교재)의 개발
 개발단계는 연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연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계단계에서 얻은 연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계획으로 강사의 강의계획서, 강의 자료와 교재가 개발된다.

제4단계 : 연수과정 운영
 연수과정 운영단계에서는 개발단계에서 만들어진 연수

자료를 사용하여 연수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개발단계에서 만들어진 연수생 평가 자료도 이 단계에서 사용된다. 이상의 3개 단계에서 얻은 개선자료도 연수과정 운영단계에서 다시 제공된다.

제5단계 : 연수의 효과성 평가

평가단계의 목적은 연수활동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고 어디에서 연수활동의 개선이 필요한가를 도출하는 것이다. 차기 훈련과정 또는 미래의 연수활동에 개선되어야 하는 훈련의 관점과 강도를 도출하는 것이다. 각 단계에서 훈련과정 개선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가 훈련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피드백은 연수담당자, 과정책임자, 강사들에게 지속적인 과정개선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평가단계에서 얻은 결과물은 훈련평가보고서, 훈련생 평가의 분석자료 같은 것이 있다. 이상과 같이 외국전문가를 초빙하여 디자인 분야의 연수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테마에 맞는 커리큘럼 개발에 SAT 기법을 <표3>에서와 같이 적용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Handbook for the Development, Conduct and Evaluation of IAEA Training Activities related to Nuclear Power, IAEA, 1997

4) , 한-IAEA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과정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2000, pp4-7

[표3] 커리큘럼 개발체계

3. 초빙 연수과정 운영 프로세스

3-1. 개설 전 준비사항

외국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훌륭한 연수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정 개설에 따른 사전준비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사전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있다면 과정의 절반은 수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 만들어진 교육목적,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표, 외국인강사 및 국내카운터파트너의 선정, 교육장소, 소요예산(안)들이다. 기획단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소요예산일 것이다. 아무리 기획력이 우수하고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원만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소요예산(안)을 편성 시 필히 편성되어야 할 예산 항목들을 살펴보면 기술정보활동비 항목으로서 우리말 순차번역에 따른 원고료, 외국인강사 초청비 및 체제비, 강사료, 외국인강사 및 카운터파트너의 중식비, 외국인강사 및 연수생 Coffee Break비, 외국인강사 만찬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재료비 성격의 항목에서는 외국인강사의 감사패 및 선물비, 바인딩 구입비, 교육용 일반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된다.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서는 교재 인쇄비 및 강의자료 복사비, 수수료 인쇄비, 차량비 등이 해당되며, 기타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수과정 계획(안)이 수립되었다면 이를(내부결재를 득 한 후) 토대로 산업체 및 학계, 기타 관련기관의 전문디자이너들에게 연수과정 안내 공문을 발송해 사전에 연수인원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수과정 안내 공문에 첨부해야 할 자료로는 교육시간표 및 교과내용, 외국인강사 및 국내카운터파트너의 이력사항, 연수생의 이력카드, 개강일 교통편 등을 동봉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수생들이 사용할 교재의 제작이다. 연수담당자는 외국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전에 강의할 자료를 미리 보내오도록 하고, 강의 자료가 도착하면 영문 자료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일과 이를 다시 한 권의 교재로 편집하여 인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강사가 강의 중에 교재 이외의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카피하여 연수생들에게 배포 할 것을 염두 해 두고 사전에 바인더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연수과정 개최에 따른 제반사항 으로서는 언론 보도용 자료작성 및 배포, 현수막 제작 (국·영문), 외국인강사의 호텔예약 및 점검, 국내 연수생의 숙소 예약 및 점검, 외국인 강사의 입·출국에 따른 특별차량배차, 외국인강사 및 연수생의 패용 및 테이블용 명찰제작, 외국인 강사 및 연수생들의 식사 문제, 교육 용품인 리포트 패드 및 필기구 준비 등이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개강식에 쓰일 개강사의 작성이다. 개강 사는 보통 정부 부처의 장이나 해당 기관장이 하게 되는데 통념상 이 분들이 개강 사를 직접 작성하는 일은 거의 없다. 때문에 사전에 개강 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다. 먼저 국문으로 작성하고, 이를 다시 영어로 작성하는 일인데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영어로 작성된 원고를 대부분 외국인에게 교정을 부탁하게 되는데 외국인에 따라 영어를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한글의 경우에도 사람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영어 또한 그렇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정통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초안이 작성되면 사전에 개강 사를 읽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교정을 부탁한다. 교정할 원고가 나오면 다시 수정작업을 해서 완벽하게 개강 사를 작성한다. 영문수수료증 및 감사패 문안 작성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

사전 준비단계의 마지막으로 점검되어야 할 사항이 강의실 점검 및 개강식의 리허설 연습이다. 시청각 기기인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원만한 개강식의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 개강식의 리허설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하나하나 차질 없이 완벽하게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개설 전 준비사항을 플로 차트(Flow Chart)로 살펴보면 <표4>과 같다.

	준비사항	준비내역
1	협조공문 발송	- 학계, 산업체에 공문 발송 - 시간표, 과정안내

	준비사항	준비내역
2	카운터파트너 강사 의뢰	- 강의 요약서 작성 - 강사로 지급 내역서 작성
3	교재제작	- 영문원고를 국문원고로 번역 - 발행부수, 교정, 보조자료 등
4	홍보 및 섭외	- 언론 및 마스크의 보도 자료 - 현수막 및 플랜 카드 제작
5	명찰 제작	- 외국인강사 및 연수생명찰 제작, 테이블 명찰
6	호텔(숙소)예약	- 외국인강사 호텔예약 및 점검 - 국내 연수생 숙소 예약 및 점검
7	외국인강사 공항 출영 및 출·퇴근 특별차량 배차	- 입·출국에 따른 차량배차 - 호텔 - 교육장까지의 출·퇴근
8	외국인강사 및 연수생 식사	- 외국강사의 조식인 경우 호텔에서 간단하게 해결
9	교육용품 구매 및 준비	- 리포트 패드, 필기구 등 - OHP 필름, 램프, VTR Tape 등
10	감사패 및 기념품 제작	- 감사패 문안 작성 - 기념품 및 선물 준비
11	수료증 제작	- 수료증 문안 작성 및 인쇄요구
12	시청각시설 점검	- 마이크, 슬라이드 프로젝트, 오디오 및 비디오 점검 등
13	개강식 연설문 작성	- 영문 및 국문 연설문 준비
14	개강식 리허설	- 좌석배치 및 개강식 프로그램에 의한 리허설

[표4] 과정 개설 전 준비사항

이 밖에도 연수과정 수행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는 과정운영의 지원 인력의 역할과 책임 도출, 외국인 강사들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사전 점검,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모든 자원목록 준비 및 확인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2. 진행 중 점검사항

연수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강식에서부터 수료 시까지 세밀한 검토와 함께 세부적인 체크 리스트의 항목을 만들어 연수과정에서의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는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바로 개강식의 행사이다. 개강식에는 주로 외부인사와 관련기관의 임직원이 참석하게 되며, 단상에는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의 장, 해당기관의 기관장, 대표적인 외국인 강사 등이 단상에 위치하게 된다. 귀빈들이 단상에 착석하게 되면 개강식의 식순에 따라 식을 진행하면 된다. 사회자는 반드시 외빈 및 외국인 강사의 소개, 국내 카운트파트너 및 연수담당자의 소개를 간략하게 해야 하므로 사전에 각각의 인사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개강식이 끝나면 곧바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귀빈들이 식장을 뜨기 전에 연수생들과 함께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이 시간상 좋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정이 끝나면 연수담당자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는 데 이 때 연수기관에 대한 소개, 연수과정 동안에 주의할 점, 연수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연수생들의 자기소개 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연수과정담당자가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외국인강사의 증식 문제이다. 나라에 따라서 식습관 문화가 틀리므로 사전에 외국인 강사가 금기시 하는 음식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두고 이를 가급적 피해서 메뉴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사할 때 같이 동행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국내 카운트파트너나 연수기관장, 또는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는 연수생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환영 및 송별만찬에도 각 별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참석범위라든가, 만찬장소, 식사 후 간단한 여흥 등을 고려해서 장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가 바로 서로의 우정과 친목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며, 동시에 민간사절로서 그들과의 자연스러운 유대강화를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행사를 하다보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연수과정 진행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카운터파트너의 역할이다. 카운터파트너는 연수생의 질문사항들을 정확하게 외국인 강사에게 전달하는 일과 외국인 강사가 설명한 내용을 정확하게 연수생들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매 섹션마다 강의 요약 분을 함축해서 알기 쉽게 연수생들에 알려 주는 것이다. 그 만치 카운트파트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전문지식은 물론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이 일을 맡아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과정 진행 중 중간에 수행해야 할 것이 국

내 유적지 방문 및 산업시찰의 스케줄 작성이다. 보통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그 곳의 역사나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연수담당자는 국내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이들에게 제공하고 이들과 같이 답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일도 중요하다. 또한 외국어에 능통한 연수기관 담당자나 연수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홈 비지트(Home Visit)의 방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저녁시간에 외국인을 초청해서 한국의 음식 및 가정을 보여 주므로 해서 이들에게 보다 색다른 맛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 때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일체는 연수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산업시찰 방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자인 산업체 및 에이전시를 선정해서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방문스케줄을 작성하고 점검해야 한다. 이 밖에 연수담당자는 외국인강사 체재비 및 국내 카운트파트너의 강사료 지급, 산업시찰에 따른 공문발송, 수료증 및 감사패 제작, 기념품 및 선물 구매, 설문서 작성, 외국인 강사의 출국 스케줄 점검 및 항공사 연락 등을 점검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연수 프로그램의 마지막 일정으로서는 분임 토의에 따른 조 편성, 교육평가서 작성, 수료식 준비 등 일련의 점검사항 들을 열거하면 아래의 <표5>와 같다.

	준비사항	준비내역
1	개강식 사회(영문)	- 기관장 및 외국인강사 개강사 - 영문사회 및 오리엔테이션
2	기념사진	- 기념사진 촬영 - VTR 촬영 등
3	예산집행	- 외국인 강사 체재비 지급 - 국내 카운트파트너 강사료 지급
4	중식	- 외국인 강사 중식(국내 인사 합석 여부)
5	수료증 발급(영문)	- 수료증 문안 작성 및 인쇄의뢰
6	평가서 및 앙케트 작성	- 교육평가서 및 설문지 문안 작성
7	강의 모니터링	- 연수과정 진행도 모니터링 - 적절하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의 관찰

	준비사항	준비내역
8	문화행사	- 근교 유적지 방문 - 근교 백화점 쇼핑 등
9	환·송 회식	- 개강 만찬 - 환송 만찬(참석 범위)
10	산업시찰	- 산업체 공문 발송 - 방문 스케줄 작성 등
11	분임토의	- 분임 토의 주제 선정 - 분임 토의 조 편성 등
12	외국인강사 출국	- 출국 스케줄 점검 - 항공사 연락 등
13	수료식	- 수료증 및 연수기념사진 - 기념품 및 선물

[표5] 과정 진행 중 점검사항

3-3. 종료 후 점검사항

연수과정 종료 후에는 그 동안에 실시한 연수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는 연수생들에 대한 교육평가 및 설문분석, 자료관리, 예산결산, 결과보고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교육평가에서는 연수기간 동안에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연수생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는 연수과정의 단점과 개선 필요성 그리고 보강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연수생 평가결과를 분석한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연수과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 연수필요성 : 연수과정이 수립된 필요성을 만족하는가?
 - 연수목적 : 목적이 분명히 가치 있게 정의되었는가?
 - 연수과정 : 연수진도가 의도된 대로 수행되었는가?
 - 연수시설 : 연수시설이 과정수행에 적절히 지원되었는가?
 - 연수비용 : 훈련 목적 달성에 최적 비용이 사용되었는가?
- 이와 같이 평가단계에 투입되는 피드백은 연수생, 강사, 과정책임자, 독립적인 검토와 외부평가자료 같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설문분석에서는 연수기간이 적당한가?, 강의의 이해 정도는?, 강사의 자세는?, 강의의 원활한 진행여부, 앞으

5) 최영명 외, 인력양성사업 보고서, 한국원자력연구소, 2000, p.49

로 추가 및 제외되어야 할 교과목, 과정을 통해서 연수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의 여부?, 개선할 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설문분석을 통해 차기 연수과정 및 미래 연수활동에 개선되어야 할 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자료 관리에 있어서는 외국인 강사 및 연수생들의 DB 작성을 통해 향후 이들과의 유대관계 및 협력을 도모하고, 연수과정에 사용한 교재 및 교육 자료의 관리를 통해서 국내의 디자인관련 종사자들이 이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산결산에서는 그동안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정산작업이며, 마지막으로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이다. 결과보고서에서는 연수과정의 목적 및 필요성, 연수과정의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 등을 기술하고, 연수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기대효과에 대한 사항들을 연수결과보고서로 작성하는 일이다. 과정 종료 후 점검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6>와 같다.

	준비사항	준비내역
1	교육평가 및 설문분석	- 교육평가 및 설문분석
2	자료관리	- 외국인강사 및 연수생 인적사항 - 교육자료 및 교재관리
3	예산결산	- 가지급 정산 - 체재비, 강사료, 원고료 등
4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에 대한 관련기관 통보 - 피드백(Feed Back)

[6] 과정 종료 후 점검사항

4.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그룹은 제2기 신 경영의 키워드로 “인재경영”을 내세웠다.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미래의 캐시 카우(돈을 벌어주는 사업)가 될 차세대 성장산업의 선점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산업경쟁력의 핵심을 “경영의 품질”에서 경영의 주체인 “사람”으로 옮긴다는 의미이다.⁶⁾ 신 경영의 추진전

략 핵심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인재경영” 실천에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디자인 개발 능력 함양은 디자인산업의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디자이너를 양성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경쟁력을 갖춘 핵심 전문 인력 양성은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학교교육을 통해서 디자이너를 양성하여 왔으며, 이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자인 산업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디자인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한국의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학교교육을 마친 후 각 산업체에서 실무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재교육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일부분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다. 즉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전문디자이너의 양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론 위주의 디자인 교육으로 디자인 교육의 실제업무 기여도는 62%에 불과하다고 2002년도 디자인센서스 조사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정부와 학계 산업체가 힘을 합쳐 실무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선진국가의 디자인전문가를 초빙하여 디자이너들에게 국제적인 디자인 감각과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실무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해외 디자인 연수 지원을 밝힌 바 있다.⁷⁾ 이들에게 해외 연수에 앞서 외국의 전문가를 국내에 불러들여 먼저 선진국가의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디자인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본 논고에서는 외국전문가 초빙 디자인분야 연수과정을 개최하기 위한 운영 전반에 관한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 다음

6) “신경영 신화는 계속된다.”, 전자신문, 2003.9.23

7) 경제장관회의 안건,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자료 산업자원부, 2004. 6.18

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전문가 초빙에 따른 연수과정의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사후평가에 이르는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틀을 제시하여 앞으로 디자인관련 교육기관이나 대학에서의 연수과정 및 세미나 유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둘째, 연수과정 운영 단계에서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정 개설에 따른 사전준비단계, 과정 진행 중 점검사항, 과정 종료 후 점검사항들에 대한 일련의 프로세스(Process)을 제공하고, 또한 각각의 사항들에 대한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어느 기관의 교육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이와 같이 외국전문가 초청 연수과정 운영에 따른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디자인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디자이너의 자질향상 및 국제적인 디자인 마인드의 함양으로 디자인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이의진 외, 한·IAEA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과정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2000
- 2) 이의진, 체계적인 교육훈련 접근법, 한국원자력연구소, 2000
- 3) 최영명 외, 인력양성사업보고서, 한국원자력연구소, 2000
- 4) 한경원 외, 인력양성사업보고서, 한국원자력연구소, 2003
- 5) 2001 사업안내, 한국인사관리협회, 2001.
- 6) 제19회 한국인재개발대회, 한국능률협회, 1998.
- 7) 산업교육·컨설팅 종합프로그램, 1998.
- 8) Nuclear Power Plant Personnel Training and its Evaluation: A Guidebook, Executive Summary, IAEA, 1996.
- 9) Handbook for the Development, Conduct and Evaluation of IAEA Training Activities related to Nuclear Power, IAEA, 1997.